

현장실습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혜영 (극동대학교 아레테교양대학 조교수)*

김보영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대학은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방향과 사회변화에 따른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의 기술적, 사회적 스킬을 교육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현장실습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일 경험과 정보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졸업 이후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와 행동을 끌어내는 동기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 경험이 고용 가능성과 창업 의도에 주는 영향을 자기 주도적 경력 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은 고용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 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기 주도적 경력 태도가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주도적 경력 태도가 높을수록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창업으로 양분되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현장실습 활동이 고용 가능성과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이 정부의 취·창업지원정책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현장실습, 고용가능성, 창업의도, 자기 주도적 경력태도, 진로자신감

1. 서론

최근 정부는 고용한파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5조 9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강화, 취·창업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2021).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학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정책과 사회변화에 따른 산업체 요구에 대응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술적, 사회적 스킬을 교육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최근 들어 직무적합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채용기준변화,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통한 각종 지원,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현장실습 운영 현황이 포함됨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 및 실습기관은 양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장후은 외, 2017). 현장실습은 학생에서 직업인의 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중간매개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과 산업체 요구 간 발생하는 스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로서 노동시장에서 요구

하는 능력을 분석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되도록 하는 기능도 담당한다(장명희·정동열, 2016).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때, 대학생 시기는 직업 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개발과 직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직업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고용획득과 유지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강인주, 2017). 고용획득과 유지에 대한 역량은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고용획득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자신감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내·외부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대처하는 능력(강인주, 2017)으로 정의되며, 고등교육에서는 교육성과의 하나로 인식된다. 특히, 다양한 현장실습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산업현장에 관한 정보와 실제경험, 나아가 직업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이는 졸업 후 취업을 넘어 ‘창업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Witherell et al., 2012).

창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 문제 해소와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창업 촉진을 위

* 가혜영, 극동대학교 아레테교양대학 조교수, khylov@kdu.ac.kr

** 김보영,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dorothy315@cau.ac.kr

· 투고일: 2021-03-08 · 수정일: 2021-04-07 · 게재확정일: 2021-04-23

한 방안과 여건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학생에게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중 하나인 ‘창업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하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창업과 취업을 선택해 나가면서 업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다(가혜영·전혜진, 2020).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 믿음 등의 긍정적 정서인 진로자신감이 필요한데, 진로자신감은 자기능력을 개발에 대한 구체화된 수준이 아닌 확신의 강도(지세환, 2018)를 의미한다. 성인 초기 단계인 대학생들은 학습활동 및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많은 시기이므로 다양한 활동과 학습경험에 의해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기회가 충분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학습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성인 초기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이 진로자신감으로서의 고용가능성과, 더 나아가 미래 창업의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방향을 취업과 창업으로 양분화되던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력경로 상에서 취업과 창업의 이동이 유연해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청년고용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당면과제를 안게 된 대학이 주어진 예산으로 취·창업지원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차별성을 둔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현장실습활동 경험이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기 주도적 경력태도를 매개로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 연구배경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1 현장실습

2017년도 교육부에서 전면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르면(고등교육법 제22조),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업을 의미하며, 현장실습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습 및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17).

미국에서 처음 시도된 ‘일 경험 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 고용주, 학교 등 참여 주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Franks & Blomqvist, 2004).

현장실습은 재학생들에게 산업 현장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진로상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진로 탄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유지원·송윤희, 2017).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경력개발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고용가능성, 높은 임금,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취업 기회의 확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Dressler & Keeling, 2004). 현장실습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산업현장에 관한 경험, 정보, 나아가 직업에 관한 통찰력은 졸업 후 취업을 넘어 ‘창업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고(Witherell et al., 2012)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청년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강조되면서 ‘창업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창업현장실습제도는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학생에게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 현장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갖게 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 한 바, 현장실습경험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2.1.2 고용가능성

자신의 경력형성을 위해 고용안정성이 중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최근에는 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보다는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백평구, 2013). 고용가능성 선행연구는 주로 재직자 혹은 성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구직을 앞두고 있는 실업자, 예비사회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실제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인 고용획득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대학생의 상황적 측면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night & Yorke, 2002).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전공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활동의 성과, 전공 관련 자격 취득, 구직 기술, 구직정보 탐색 등 폭넓은 구직준비활동이 고용가능성의 핵심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정선정(2014)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구직(직업)능력, 구직(직업)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 취업 기대수준 조정을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고용가능성의 제고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나(강명숙·방은령, 2015), 단지 실제적인 고용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능력개발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여 이를 제고시켜 줄 필요가 있다.

2.1.3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창업 활동에 동참하려는 개인의 의지이며, 창업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인정받아 왔다(Ferreira et al., 2012). 대학생의 창업의도란 ‘개인이 진로경로상에서 창업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실제 창업으로 실행되기 이전의 인지적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의미한다(채연희, 2016). 창업의도는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창업행동의 토대가 된다. 이는 창업과 연관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창업의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 및 취업교육이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우·강민형,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력개발을 위한 계획 및 활동과정에서 취업과 창업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활동은 취업을 넘어 창업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희·조건, 2015).

2.1.4 현장실습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경험을 통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직무숙련도가 높아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졸업 후 취업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직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성희·이상근,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도 현장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용가능성, 높은 임금,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취업 기회 확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Dressler & Keeling, 2004).

고용가능성은 개별 변인 및 경력과 역량 개발의 영향을 받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대학 내 진로학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대학 교육서비스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으며(김재현, 2011; 강인주·정철영, 2013; 강명숙·방은령, 2015),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고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정선정, 2014)는 연구결과가 있다.

2.1.5 현장실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은 산업 및 기업현장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쌓게 되어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추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실무경험은 미래의 직업에 긍정적인 경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

을 길러 줄 수 있다(김지영, 2016; 이종호 외, 2015). 실무경험을 통해 갖추어진 전문성은 모험적 일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적이고 발전 가능하게 진화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영, 2014; 김지영, 2016).

이처럼,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경험은 취업과 창업이 양분화된 단절형 창업환경을 극복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춘식, 2019).

2.1.6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자신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는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프로티언 경력태도(Protean Career Attitudes) (Hall, 2004)는,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Hall, 1976).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력성공기준과 척도를 제공하는 내적 가치인 가치지향성과 경력관리의 실행적 능력을 가진 자기주도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지진·김정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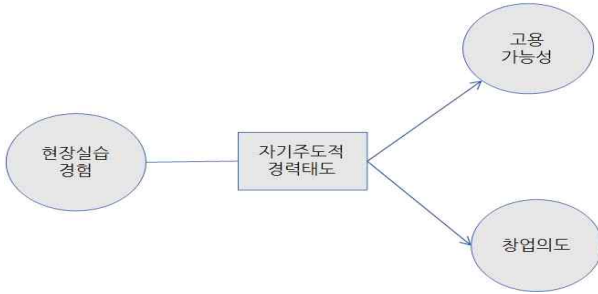
프로티언 경력태도에서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도’로, 경력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경력을 관리해 가는 것을 말한다(Briscoe & Hall, 2006). 자기주도성이 높은 개인은 자기 성장을 위한 직무 탐색, 성장 기회 및 경력 선택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이며(김은석·정철영, 2010), 높은 자기주도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에 더욱 도리적인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동하·탁진국, 2008).

또 다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적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성장기회를 통해 다음 단계의 기회를 모색하고, 주변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본인이 적용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한다(김지석, 2018)고 하였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현장실습경험이 실제로 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의 영향에 따라 현장실습이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산업 및 기업 현장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쌓게 되어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이러한 실무경험은 미래의 직업에 긍정적인 경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다(김지영, 2016; 이종호 외, 2015). 대학생들의 경력개발활동은 취업을 넘어 창업의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희·조건, 2015). 특히, 프로티언 경력태도에서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력태도로, 경력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경력을 관리해 가는 것을 말한다(Briscoe & Hall, 2006).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에 따라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에 따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장실습 경험이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충청권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 설문대상의 학생들은 취·창업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며, 학교와 연계된 현장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진로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전공 교과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실습 활동을 접하며 전공역량을 개발해 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5.0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별 측정 자료

구분	척도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특성	명목척도	8	
현장실습경험	더미변수	1	Franks & Blomqvist, (2004)
고용가능성	Likert 5점 척도	21	Harvey(2003), 정선정(2014)
창업의도		5	Fitzsimmons & Douglas(2011)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10	Briscoe et al(2006)

IV.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량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이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다. 연구에 사용된 전체표본은 324개로 그 중 남학생은 70.1%, 여학생은 29.9%로 남자가 여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공학계열의 학과가 많아서 남학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 (명)	퍼센트 (%)
성별	남자	227 70.1
	여자	97 29.9
학년	1학년	182 56.2
	2학년	80 24.7
	3학년	52 16.0
	4학년	10 3.1
전공계열	인문계열	65 20.1
	사회계열	15 4.6
	교육계열	2 0.6
	공학계열	213 65.7
	자연계열	11 3.4
	의학계열	2 0.6
현장실습	있음	115 35.5
	없음	209 64.5
아르바이트	있음	218 67.3
	없음	105 32.4
자격증	없음	189 58.3
	1개	55 17.0
	2개	31 9.6
취업지원센터	3개 이상	49 15.1
	없음	279 86.1
	1번	39 12.0
	2번	4 1.2
합계	3번 이상	2 0.6
	합계	324 100

표본의 대상은 1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고학년일수록 비율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계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공학계열이 65.7%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 표본대상의 절반 이상이 공학계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의학계열이 0.6%로 가장 작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취업과 창업에 연

관된 표본의 특성이다. 현장실습경험 유무는 경험 있음이 35.5%, 경험 없음이 64.5%로 표본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취·창업 교양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학교에서 연계된 현장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3%,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는 32.4%로 나타났다. 자격증 여부를 보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58.3%, 자격증이 1개는 17.0%, 자격증 2개는 9.6% 자격증 3개 이상은 15.1%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대상이 저학년이 많고 고학년이 적은 결과로 보인다. 취업센터 지원 경험여부는 전혀 없음이 86.1%, 1번 12.0%, 2번은 1.2%, 3번 이상은 0.6%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의 분포가 많으므로 아직 적극적으로 취업의 준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은 <표 3>에서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인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로 살펴보면, 고용가능성의 변수는 최소값이 1.90, 최대값이 5.00 평균이 3.3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0.482이다. 창업의도의 변수는 최소값 1.00 최대값 5.00, 평균이 2.54, 표준편차는 0.887으로 변수들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현장실습경험 유무인 더미변수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 평균이 0.65 표준편차가 0.479이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최소값이 2.57, 최대값이 5.00이며, 평균이 3.65, 표준편차 0.451이다. 통제변수인 성별, 학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자격증 유무, 취업센터의 서비스 여부의 기술통계량이다. 다른 통제변수들에 비해 최소값과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성별은 최소값 1.00, 최대값은 2.00이며 평균은 1.30, 표준편차는 0.459로 나타났다. 학년은 최소값 1.00, 최대값은 2.00이며 평균은 1.66, 표준편차는 0.856으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유무변수는 최소값 1.00, 최대값은 3.00이며 평균은 1.33, 표준편차는 0.478로 나타났다.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용가능성	1.90	5.00	3.36	0.482
창업의도	1.00	5.00	2.54	0.887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2.57	5.00	3.65	0.451
현장실습 경험	0.00	1.00	0.65	0.479
성별	1.00	2.00	1.30	0.459
학년	1.00	4.00	1.66	0.856
아르바이트	1.00	3.00	1.33	0.478
자격증	1.00	4.00	1.81	1.120
취업센터경험	1.00	4.00	1.16	0.446

자격증은 최소값 1.00, 최대값은 2.00이며 평균은 1.81, 표준편차는 1.120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센터 서비스 경험여부 변수는 최소값 1.00, 최대값은 4.00이며 평균은 1.16, 표준편차는 0.446로 나타났다.

4.2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검증

<표 4>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 변수와 매개변수인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설문문항의 분석결과이다. 고용가능성은 21문항, 창업의도 5문항,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14문항이다 창업의도 변수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결과 모두 0.5이상이고, 고용가능성 변수 문항 14번과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문항 1,2번수의 결과 0.5미만인 변수는 타당성을 저해하거나 다른 요인에 적재되지 않으므로 문항을 모두 제외시켰다. 나머지 문항들은 하나의 특성으로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지므로 평균값을 사용하용 분석에 사용하였다.

Kaiser-Meyer-Olkin(KMO) 측정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 값으로 고용가능성 변수는 0.878, 창업의도 변수는 0.809,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변수는 0.812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설명되고 있다. 모든 변수가 0.8 이상이므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분석의 고유치(Eigen Value)은 고용가능성은 30.573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0.963, 창업의도는 3.461로 나타났다. 고유치의 합은 분석중인 변수의 개수를 넘지 못함으로 적절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있다. 신뢰성 분석인 Cronbach's α 값은 0.5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고용가능성 변수는 0.905, 창업의도 변수는 0.905,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변수는 0.728로 변수들 간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표 4>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결과

	고용가능성		창업의도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문항	요인 분석	문항	요인 분석	문항	요인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문1	.762	문1	.757	문3	.558
	문2	.800	문2	.709	문4	.608
	문3	.593	문3	.783	문5	.659
	문4	.582	문4	.650	문6	.614
	문5	.674	문5	.516	문7	.619
	문6	.764		문8	.668	
	문7	.660		문10	.729	
	문8	.567		문12	.646	
	문9	.650		문13	.513	
	문10	.617		문14	.728	
	문11	.617				
	문12	.570				
	문13	.582				
	문15	.689				
	문16	.739				
	문17	.574				
	문18	.581				
	문19	.744				
	문20	.820				
	문21	.773				
	Kaiser Meyer Olkin	0.878		0.809		0.812
유의확률	0.000		0.000		0.000	
Cronbach's α	0.905		0.877		0.728	

4.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 <표 5>는 현장실습 경험에 따라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고용가능성	창업의도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현장실습
고용가능성	1			
창업의도	0.232**	1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0.440**	0.164**	1	
현장실습	0.208**	0.104	.132*	1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인 현장실습 경험의 유무와 고용가능성 변수는 양(+)의 관계로 유의수준 내($P < 0.001$)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의도 변수와는 양(+)의 관계는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현장실습 경험과 매개변수인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관계에서는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와는 양(+)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P < 0.05$)로 나타났다.

4.4 회귀분석결과

<표 6>과 <표 7>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은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에 따라 고용가능성에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변수인 현장실습경험의 유무,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학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자격증 유무, 취업센터서비스 유무로 설정하였다.

<표 6> 고용가능성 회귀분석결과

모형 변수	검증모형	
	계수값	t-value
Intercept	1.767	8.11***
현장실습 경험	0.164	2.48**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0.428	8.64***
성별	0.107	2.13*
학년	-0.078	-1.42
아르바이트 경험	-0.045	-0.86
자격증	0.085	1.57
취업센터서비스	-0.076	-1.13
Adj R-square	23.2%	
F- Value	14.968***	
최대VIF값	1.84	
표본수	324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고용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수값은 0.164, t-value값은 유의수준 5%이내에서 2.48이었다. 그리고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계수값은 0.428, t-value값은 8.64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이는 현장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연구표본이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제변수인 성별에서 여학생의 경우 고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년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고용가능성에 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취업센터서비스는 학생 각자 선택한 서비스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창업의도 회귀분석결과

모형 변수	검증모형	
	계수값	t-value
Intercept	1.522	3.38***
현장실습 경험	0.019	0.25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0.148	2.61***
성별	-0.018	-0.32**
학년	0.079	1.27
아르바이트 경험	-0.073	-1.25
자격증	-0.017	-0.27
취업센터서비스	0.055	0.85
Adj R-square	29.0%	
F- Value	2.393***	
최대VIF값	1.84	
표본수	324	

다음 <표 7>은 현장실습 경험을 한 학생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 0.019, t-value값이 0.25로 유의수준에서 벗어나 가설H2는 기각되었다. 매개변수인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변수는 계수값 0.148, t-value값은 2.61로 1%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H2는 기각되었다. 이는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에 따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창업의도가 높다고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학생일수록, 자격증 있는 학생일수록 창업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실습 경험의 유무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은 학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표 7>분석 결과로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매우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찾아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력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이 개인의 취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에만 연결시킨 기존의 연구에 창업에 더함으로써 창업의 동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로자신감으로서의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를 반영하여 대학의 취·창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은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창업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장실습을 통한 직무경험이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 다수의 선행연구(Franks & Blomqvist, 2004; Dressler & Keeling, 2004; 김성희·이성근, 2017)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직무현장에 관한 경험이나 정보가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창업’의 동기로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자기주도적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개인은 자기 성장을 위한 직무 탐색, 성장 기회 및 경력 선택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이며(김은석·정철영, 2010), 높은 자기주도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에 더욱 도전적인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이동하·탁진국, 2008)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내 진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경력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창직이나 1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업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확득과 창업에 대한 도전 등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단순히 구직 및 창업역량 위주의 프로그

램이 아닌 주도적으로 경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은 자체적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표본이 저학년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창업 관련 수업과 대학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 및 경력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의 핵심은 전공과 관련 있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실무경험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학에서는 장기간 현장실습이 가능한 학사과정 개편이 요구되며 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사제도의 개편 및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확대운영이 절실하다.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면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들도 다양한 창업지원 학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창업친화적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은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뛰어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캠퍼스 내에 갖춰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충청권 A대학의 표본으로 한정된 점이다. 또한, 정부의 고용활성화대책에 맞춰 대학의 제한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취·창업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고용노동부(2021).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올해 5.9조 투입해 104만여명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573
- 가혜영·전혜진(2020). 대학생의 무형식학습이 구직능력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팀 학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3), 121-132.
- 강명숙·방은령(2015).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2, 21-46.
- 강인주(2017). 특성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현장중심 교육과정 및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 특성화 III 유형 최우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9-41.
- 강인주·정철영(2013). 경기 지역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교육서비스, 자기성찰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3), 63-84.

- 김은석·정철영(2010). 청년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이 이직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3), 107-122.
- 김시진·김정원(2010). 프로틴 경력태도, 무경력 경력태도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3(4), 1899-1915.
- 김성우·강민형(2016). 창업·취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취업의도 영향요인에 미치는효과. *공학교육연구*, 19(4), 47-59.
- 김성희·이상곤(2017). 장기현장실습이 취업 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도, 직무일치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0(5), 3-13.
- 김재현(2011). *전문대학 교육서비스가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지영(2014).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7(4), 41-70.
- 김지영(2016). 인턴십 경험을 통한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턴십 기관요인에 관한 질적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9(1), 65-99.
- 김지석(2018). *개인 직무 적합성, 주도성, 경력개발지원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춘식(2019). 코업 (CO-OP) 교육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실습연계형 대학 교육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26(3), 61-80.
- 교육부(2017).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http://incedu.kunsan.ac.kr/bbs/board.php?bo_id=pro_data&wr_id=31.
- 백영구(2013). 대학생 고용가능성과 개인 변인의 관계 분석 : A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39-61.
- 유지원·송윤희(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실무역량,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의 잠재평균 비교. *진로교육연구*, 30(1), 181-200.
- 이동하·탁진국(2008). 주도성과 핵심자기평가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1), 83-103.
- 이종호·채민수·장후은(2015). 지역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Co-op) 활성화를 위한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 센트럴위싱턴대학교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4), 639-648.
- 장명희·정동열(2016). NCS 를 활용한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35(3), 1-26.
- 정선정(2014).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적 특성, 훈련프로그램 특성, 학습몰입 및 경력계획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후은·허선영·이종호(2017).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2), 493-500.
- 지세환(2018). *대한 미식축구 선수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요인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셀 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순차적 다중매개효과와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한정희·조진(2015).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111-118.
- Baek, P. G.(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mployability and Individual Variant Factors: A Case of 'A' University, *Korean Education Inquiry*, 31(3), 39-61.
- Briscoe, J. P., & Hall, D. T.(2006). The interplay of boundaryless and protean careers: Combination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1), 4-18.
- Briscoe, J. P., Hall, D. T., & DeMuth, R. L. F. (2006). Protean and boundaryless careers: An empirical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1), 30-47.
- Chae, Y. H.(2016). The Effect of Employ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an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jor,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l University.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r(2021). *More jobs for young people...Invest 5.9 trillion won this year to support 1.04 million people..* Korea Policy Briefing.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573.
- Dressler, S., & Keeling, A. E.(2004). Student benefits of cooperative education. *International handbook for cooperative educ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f th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of work-integrated learning*, 217-236.
- Ferreira, J. J., Raposo, M. L., Rodrigues, R. G., Dinis, A., & Paço, A. D.(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440.
- Fitzsimmons, J. R., & Douglas, E. J.(2011). Interaction between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i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4), 431-440.
- Franks, P., Blomqvist, O., Coll, R. K., & Eames, C.(2004). The World Association for Cooperative Education: The global network that fosters work-integrated learning. *International handbook for cooperative educ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f th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of work-integrated learning*, 283-289.
- Hall, D. T.(1976). *Careers in organizations*. Santa Monica, CA: Good Year Publishing Co..
- Hall, D. T.(2004). The protean career: A quarter-century journ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13.
- Han, J. H., & Cho, G.(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11-118.
- Harvey, L.(2003). *Employability and Transitions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LTSN Generic Centre.
- Jang, M. H., & Jung, D. Y.(2016).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IPP(Industrial Professional Practice) Program based on NC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3), 1-26.
- Jang, H. E., Heo, S. Y., & Lee, J. H.(2017).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in Korean Universit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493-500.
- Ji, S. H.,(2018).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among college football player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Jung, S. J.(2014). *The relationships among employability,*

- traine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raining program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and career planning of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 Ka, H. Y., & Jeon, H. J.(2020). The Effect of Informal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Employ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eam-bas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3), 121-132.
- Kang, M. S., & Bang, E. R.(2015).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2, 21-46.
- Kang, I. J., & Jyong, C. Y.(2013).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Employability, Educational Service, Self-Reflection and Self-Efficacy of Junior Colleg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3), 63-84.
- Kang, I. J.(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mployability, Field Based Curriculum and Learning Engagement of Specializ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2), 9-41.
- Kim, C. S.(2019). A Study on the University Start-Up Activation Plan through CO-OP Education : Focused on Development of a University Education Model with linking Field Practic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6(3), 61-80.
- Kim, E. S., & Jyong, C. Y.(2010). The Role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 Voluntary Turnover Proces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3), 107-122.
- Kim, J. H.(2011). *The effects of college educational service on student's employ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Kim, J. S.(2018). *The Effect of Person-Job Fit,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on Career Success*,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 Kim, J. Y.(2014). Meaning of the Internship Program Experience in the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4), 41-70.
- Kim, J. Y.(2016). Internship Institutions Factor i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rough Internship Exper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1), 65-99.
- Kim, S. H., & Lee, S. K.(2017). The effects of long-term on-site training on job satisfaction afteremploy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match,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5), 3-13.
- Kim, S. J., & Kim, J. W.(2010). Empirical Relationships Among Protean Career Attitude,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4), 1899-1915.
- Kim, S. W., & Kang, M. H.(2016). Entrepreneurial·Job Search Education's Effects on the Anteceden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Job Search Intentio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4), 47-59.
- Knight, P. T., & Yorke, M. (2002). Employability through the curriculum.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8(4), 261-276.
- Lee, D. H., & Tak, J. K.(200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Core Self-evaluation on Career Succes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1(1), 83-103.
- Lee, J. H., Chae, M. S., & Jang, H. E.(2015).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o-operative Education in a Regional Public University : The Case of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US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1(4), 639-648.
- Ministry of Education(2017). *Regulations on Field Practice for College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Examination, http://lincedu.kunsan.ac.kr/bbs/board.php?bo_id=pro_dat a&wr_id=31.
- Witherell, R., Cooper, C., & Peck, M.(2012). *Sustainable jobs, sustainable communities: The union co-op model*, Ohio Employee Ownership Center.
- You, J. W., & Song, Y. H.(2017). Comparing latent means on job competencies, career resilience, career insight, and career identity of groups with and without field exper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30(1), 181-200.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n Career Confidence of University Students

Ka, Hye Young*

Kim, Bo Young**

Abstract

Recently, universities are being requested to educate a wider range of technical and social skills in order to respond to the government's policy for promoting youth employment and the industrial demand arising from social changes. Accordingly, field practice at universities is being further strengthened.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ether the work experience and information that students gained through field practice can improve their confidence in their career path, and can serve as a motive for not only employment but also start-up after graduation. In this study, the motivational aspect which leads to action by improving students' confidence in their career path is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field practice experience on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lso analyzed by setting a self-directed career attitude as a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ability, bu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self-directed career attitude of students with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employability. Third, the higher the self-directed career attitude has also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shows the influence of field practice on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eyond the limit of the existing research that was divided into employment and start-up. Theoretical basis for analyzing whether universities can achieve practical results simultaneously in government policy for employment and start-up is also provided.

Keywords: Field Practice, Employability,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directed Career Attitudes, Career Confidence

* First Author, Far East University ARETE College of Liberal Arts Assistant Professor , khylov@kdu.ac.kr

** Corresponding Author, Chung-Ang University Da Vinci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dorothy315@cau.ac.kr